

## ■ 연구원 소식

### ○ 2018년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송년회" 안내

: 올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던 한반도에 훈풍을 불어넣은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다사다난했고 어느 해보다 쏠살같이 지나 간 2018년을 정리하고 연구원 가족들의 한해살이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24년 전인 1894년 양력 12월 28일은 녹두장군 전봉준이 순창 피노리에서 체포된 날이기도 합니다.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주국가를 꿈꿨던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를 두기 위해 마련한 2018년 송년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을 힘차게 준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연말연시라 바쁘시겠지만 많은 회원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부탁드립니다.

- 시간 : 2018.12.8(金) 18시 30분
- 장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송년행사 후 연구원 인근에서 뒤풀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급적 자가 차량대신 대중교통으로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소 개

#### 쉽고도 편한 시를 지은 백거이(白居易)

백거이의 자는 낙천(樂天)이다. 그는 만년에 아호를 취음선생(醉吟先生) 혹은 향



산거사(香山居士)라고 하였다. 그의 이름 '거이(居易)'는 『중용(中庸)』 가운데 “군자는 편안한 자리에 거처하면서 천명을 기다린다.[君子(군자) 居易以俟命(거이이사명)]”는 말에서 따왔다. 그의 자(字)는 『주역(周易)』의 「계사(繫辭)」에서 “천명을 즐기고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樂天知命(낙천지명) 故不憂(고불우)]”는 말에서 왔다. 그러므로 “천명에 순응하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 맞추어 행한다.[順天與素位而行(순천여소위이행)]”는 유교적인 처세사상이 그의 이름과 자 속에 모두 담겼음을 알 수 있다.

백거이는 대종(代宗)이 집권하던 대력(大曆) 7년에 정주(鄭州) 신정현(新鄭縣)에서 계당(季唐)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생애에 관한 자료는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에 수록된 「백거이전(白居易傳)」 등에 나타난다.

백거이의 본관은 원래 태원(太原)이었다. 그런데 그의 6대 조부였던 백건(白建)이 태원에서 한성(韓城)으로 이주하였고, 증조부 백온(白溫)이 다시 한성에서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위남현(渭南縣)에 해당하는 하규(下邳)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그의 조부 백굉(白鏜)은 만년에 하남성(河南省) 공현(鞏縣)의 현령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뒤, 형양(滎陽)의 경치를 사랑하여 마침내 신정현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백거이가 출생한 곳은 신정현의 동곽리(東郭里)이다.

이번 주에 소개할 백거이의 시는 그 유명한 권학문(勸學文)이다.

## ■ 작품 및 번역

### 勸學文(권학문 / 배우기를 권하는 글)

有田不耕倉廩虛(유전불경창름허)

밭 있어도 갈지 않으면 곳간은 비게 되고

有書不教子孫愚(유서불교자손우)

책 있어도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들이 어리석어진다네.

倉廩虛兮歲月乏(창름허혜세월핍)

곳간이 비면 살기가 궁핍해지고

子孫愚兮禮義疎(자손우혜례의소)

자손이 어리석으면 예의가 소홀해지나니.

若惟不耕與不教(약유불경여불교)

만약 밭 갈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是乃父兄之過歟(시내부형지과여)

이는 아버지와 형의 잘못이로다.

## ■ 역사 속의 오늘

### 성탄 전야의 대학살(1949년 12월 24일)

전쟁 때도 아닌 평시에 주민들이 국군을 환영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산골마을을 완전히 불태우고 주민 86명을 무참히 살해한 민간인학살사건.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성탄 전야였다. 1949년 12월 24일, 정오께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국군 병사들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이 발생했다. 군인들은 카빈 소총과 수류탄, 바주카 포 등으로 마을 주민 136명 가운데 어린이 9명과 여성 44명을 포함해 모두 86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가해부대는 당시 문경과 점촌지역에 주둔하던 국군 제2사단(사단장 송호성) 25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 및 3소대원 70여 명은 석달마을을 포위하고 주민들을 모은 뒤 주민들이 빨치산에게 부역했는지를 추궁했다. 주민들이 이를 부인하자 군인들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하기 시작했다. 희생된 사람은 젓먹이 3명, 초등학생 9명을 포함하여 남자 43명, 여자 43명이었다. 부상만 입은 주민들은 확인 사살되었다.

군부대는 이어 400년간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던 이 마을 가옥 27채를 불살라버려 마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부상당하는 바람에 확인사살을 면한 12명의 중상자들은 점촌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뒤 일부는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

사건의 발단은 순전히 현지 부대 인솔자의 오판과 정찰 임무만 수행하라는 상부 명령 무시였다. 즉 가해부대는 순찰만 돌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군부대가 들러도 환영해주지 않는다고 여긴 마을 분위기에 분개해 무차별 인간사냥을 벌인 것이다.

사건 당시 출타중이거나 무참한 인간 살육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마을 주민은 60여명이었다. 이들은 사건후 사라진 마을을 영영 등지기도 했고, 일부는 없어진 마을 터 아래에 집을 지어 새로 마을을 형성한 뒤 지금까지 한 맺힌 세월을 살고 있다.

일가족이 전멸해 대가 끊긴 집안도 6가구에 이르렀으며 생존자들 역시 대부분이 일가족을 잃고 한 두명씩 살아남은 탓에 이후 이들의 인생은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이 사건에 대해 함구를 강요당했다.

이승만 정부는 이 학살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듬해 1월 신성모 당시 국방부장관이 헌병과 장갑차의 호위를 받으며 현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돌아간 뒤, 이 사건은 '공비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으로 조작되었다. 당시 문경경찰서장과 산북지서 주임이 '공비 출몰 총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당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 것이었다.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유족들은 긴 침묵의 세월을 강요당하며 살아야 했다. 4·19혁명 뒤에야 비로소 억울한 사연을 풀어달라고 호수할 수 있었다. 국회의 진상조사반이 학살의 진상을 파헤치고 보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사건은 해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5·16 쿠데타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진정했던 유족 대표는 포고령 위반죄로 체포돼 두 달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 이후 이어진 기나긴 군부독재 기간을 유족들은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다.

유족들이 유족회를 결성하고 합동위령제를 지내게 된 것은 93년 5월이 되어서였다.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경양민학살의 진상을 밝힌 것은 2007년이었다. 참여정부 들어 발족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과거사 청산에 의해 국가의 불법 행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 사건이 이승만이 집권한 제1공화국 정부에 의해 공비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진실화해위도 2007년 6월 "국군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어떠한 선별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이 1949년이었으니 꼭 70년 전 오늘 일어난 '문경 양민학살 사건'은 국가의 군대가 자신들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민인을 죽인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2장 10조는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 이래 아래처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후원사업 안내

###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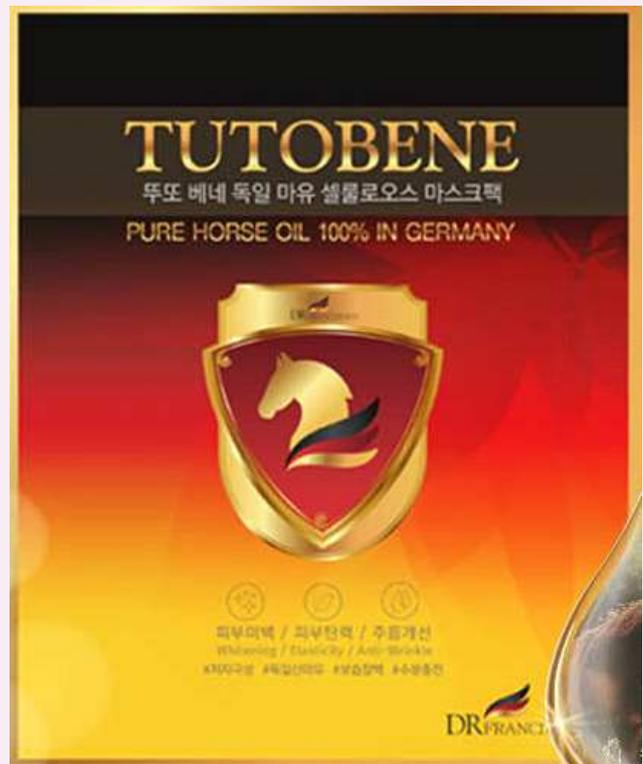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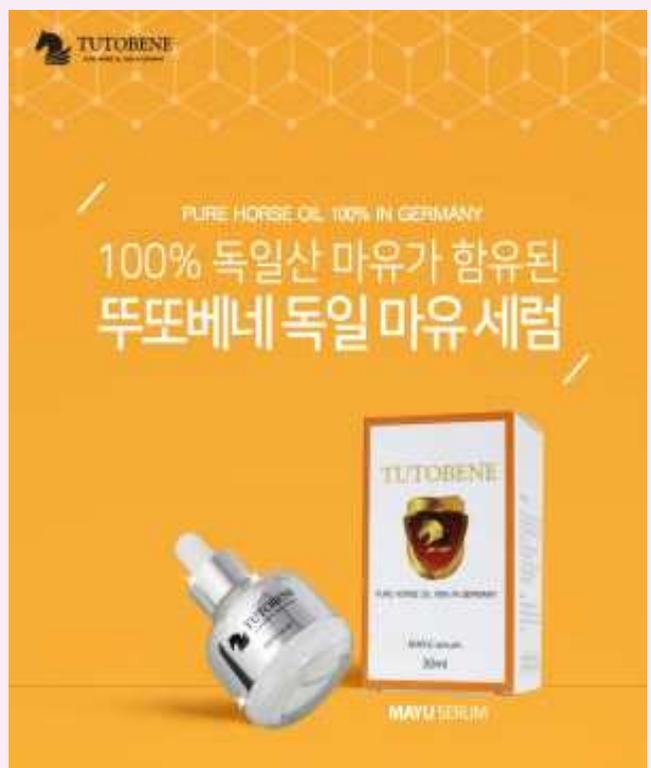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 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